

존엄과 영광의 상징 국기를 우리르며



모두에게 희망과 신심을 안겨주며 밝아온 새해 2022년, 새해를 맞으며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는 국기제양식이 진행되었다.

애국가의 장중한 선율이 울리는 속에 람홍색공화국기가 서서히 게양될 때 광장에 모인 수많은 남녀노소 모두가 경건한 마음으로 어머니조국의 국기에 삼가 숭고한 경의를 드렸다.

이들만이 아닌 온 나라의 가정들마다에서 사람들은 TV로 국기제양식을 지켜보며 숭엄한 감정에 물젖어 있었다.

잊을수 없는 한해를 마감하고 밝아온 조국의 희망찬 새해를 맞으며 세차게 펄럭이던 우리의 빛나는 국기. 그 기발을 우리르며 누구나 격정과 흥분을 금치 못하였다.

불과 한세기전까지만 해도 조선은 국호도, 주권도, 영토도 잃고 사람 못살 암흑의 천지로 화하였었다. 힘이 약해 외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백성은 노예가 되어야 했던 수난 많은 나라였다.

그러했던 이 땅에 오늘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존엄과 번영의 시대, 강국의 새 시대가 펼쳐져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지위는 최절정에 이르렀고있다.

영토는 작고 인구는 많지 않지만 세계에 그 이름 빛나는 강대한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홀러온 2021년에도 조선에서는 무진막강한 자위의 힘을 과시하며 성대한 열병식이 펼쳐지고 신형장거리 순항미사일시험발사,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시험발사 등이 련이어 성과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국방발전전략 《자위-2021》도 열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5개년계획 첫째 과업수행에 떨쳐나선 인민들에게 무한한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그 환희와 긍지로운 날과 날들이 펄럭이는 국기에 다 비껴 사람들의 눈가에 주마등처럼 흘러가고있었다.

밤하늘에 휘날리는 국기를 경건히 바라보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숭엄히 자리잡은 생각, 그것은 또한 위대한 인민의 나라에서 사는 무한한 행복감이였다.

홀러온 지난 한해에도 세상은 어지러웠다. 피난민행렬이 방황하고 비명과 곡성이 터져나왔다. 세계적인 대전염병사태로 우리죽음이 나고 경제와 민생이 더욱 피폐해져 실업자가 거리를 메우고 반정부시위와 집회들이 어디서나 그칠새 없었으며 삶의 막바지에 이르러 다른 나라로 탈출하는 이주민들의 행렬이 세계도처에서 끊없이 물결치였다.

그러나 이 땅, 이 하늘아래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지난 한해에도 조선로동당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전체 인민을 자애롭게 보살피고 포근히 감싸안아주었으며 수도 시민들을 위한 1만세대 살림집건설과 검덕지구의 5000세대 살림집건설, 조선로동당의 육아정책을 비롯하여 인민을 위한 중대조치들이 련

속 취해졌다. 얼마전에도 수도의 매가정들에 또다시 사회주의바다향기가 넘쳐흘러들어 누구나 장군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을 가슴뜨겁게 되새기며 격정의 눈물을 흘리였다.

인민들의 자주적권리가 참담게 보장되고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로 날과 날이 흐르는 세상에서 가장 인민적인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그 자랑스러운 국가의 상징인 국기가 밝아온 새해를 알리며 김일성광장상공에 펄럭 휘날리고있었으니 정녕 것처럼 자랑스럽고 멋뻐하고 긍지높은 국기제양식이 세상 어디에 또 있겠는가.

국기제양식이 진행된 시간은 길지 않았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에 공화국은 더욱 강한 하나가 되었다.

밝아온 2022년, 홀러갈 희망찬 새해를 기쁨속에 속삭여주며 국기는 끝없이 펄럭이였다.

본사기자 김준경



2022년 신년 경축 공연 진행

우리식 사회주의를 더욱 강대하고 부유한 길로 인도하는 위대한 당중앙의 향도 따라 새 승리의 진군로를 활기차게 열어나가는 천만 인민의 무한한 애국열의가 새해 주체111(2022)년의 려명으로 불타올랐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밝힌 웅대한 실천강령을 높이 받들고 이민 위원, 일심단결, 자력경쟁의 위력으로 용진해온 2021년의 긍지높은 추억과 새해의 크나큰 희망과 열정

으로 뜨겁게 달아오른 12월 31일 밤 수도 평양에서는 신년경축공연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특색있는 무대장치와 화려한 장식물들로 불야경을 이룬 김일성광장은 신년을 앞둔 시민들의 환희로 실레이었다.

존엄높은 강국의 공민된 자긍심을 북돋아주며 신년경축공연무대에 《위대한 내 나라》, 《내 나라 제일로 좋아》의 노래선율이 울려 퍼지였다.

출연자들은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로 이 땅우에 새로운 발전과 번영의 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펼쳐준 조선로동당의 불멸의 업적과 위대성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력사의 모진 풍파속에서도 천만 자식을 소중히 품어안아 보살피고 기쁨과 행복을 꽃피워주는 위대한 어머니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분출시킨 녀성독창 《그 정을 마르네》, 혼성2중창 《우리 어머니》는 관중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리였다.

공연무대에는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진 군로의 탄과 지혜를 아낌없이 바치며 새로운 5개년계획수행의 첫째를 빛내인 승리자들의 희열이 차넘치였다.

전세대의 고귀한 투쟁전통을 이어 어렵고 힘든 전구들에 탄원진출하여 위훈의 창조자로 아름다운 삶을 꽃피워가는 애국청년들의 기상을 담아내고 경축의 밤하늘에

올려 퍼진 《청춘들이 받들자 우리 당을》, 《같이 가자요》를 비롯한 청춘송가들은 약동하는 공연분위기를 더한층 돋구었다.

인민의 행복과 기쁨을 노래한 남성독창과 녀성방창 《행복의 래일》, 남성4중창 《벼가울러 갈 때》, 녀성중창과 남성방창 《바다 만풍가》, 혼성중창 《정말 좋은 세상이야》 등은 자력으로 전면적부흥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 공화국의 자랑찬 모습을 감명깊

게 보여주었다.

희망찬 새해의 첫 시각을 가까이하는 광장에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을 높이 모신 끝없는 영광과 행복속에 천만년 존엄높이 살아갈 전인민적인 사상감정을 구가한 노래 《인민의 환희》가 대중창으로 울려 퍼지며 공연은 절정을 이루었다.

위대한 아버지의 따뜻한 축복속에 인민의 리상과 념원, 온 나라 모든 가정의 소중한 행복이 더 활

작 꽃피려낸 새해의 기쁨과 람만, 격정으로 시종 뚫어변진 공연은 대중창과 무용 《세상에 부림없어라》, 《설날아 내려라》로 끝났다.

2022년 신년경축공연은 위대한 김정원수님과 더불어 무궁번영할 사회주의미래에 대한 확신과 우리 국가제일주의기치높이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비약해나갈 인민의 불타는 애국의 열정을 잘 보여주었다.

본사기자

